

[보도자료] “모든 방법 동원해 고객 주문 최대 소화할 것”

2020. 2. 20.

- 쿠팡,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비상 체제 돌입
- 대구 경북 포함 전국 배송망 정상 운영에 총력 기울여

2020. 2. 20 서울 – 쿠팡이 20일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 주문이 전국적으로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쿠팡은 주문량이 급증한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배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규 환자가 몰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원활하게 생필품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전날인 19일 이후 이 지역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어, 조기 품절과 극심한 배송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경북지역에 배송을 안해주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전례 없는 정도로 주문이 몰리고 있어 배송 인력을 긴급히 늘리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문 처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게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